

포스트모던 시대의 종교적 메시지전달에 관한 연구

이 재 영

선문대학교

〈요 약〉

사람들이 사물과 현상을 인식하는 방식은 시대를 따라 달리 해왔다. 근대주의 인식의 방식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인식의 방식을 가져왔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시대가 도래 하면서 사람들은 이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논리적 인식보다는 감성과 느낌에 의해 인식하려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사람들의 인식의 방식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근대주의 인식론에 기반을 둔 진리와 지식 전달은 이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전달 방식을 취해왔다. 진리나 지식의 전달에 있어서 연역적 방식에 의한 전달 방식으로 논설적이고 해설적인 방식으로 전달하여 왔다. 포스트모던 시대를 맞아 사람들은 상대주의, 다원주의, 문화주의 인식론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론의 바탕 위에 있는 청중들에게 과거의 연역적 설명 방식 즉 논설적이고 해설적인 종교적 메시지 전달 방식으로는 설득력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없게 되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종교적 메시지 전달방식은 연역적인 것에서 귀납적으로, 해설 중심에서 이미지 중심으로, “들어라”에서 깨우침을 주는 것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말하기, 듣기 중심의 학교-교수형 종교적 메시지 전달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감성 중심의 전달 방식을 취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말 중심의 종교적 메시지 전달 방식에서 감각 중심의 종교적 메시지 전달방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감각 중심의 전달만으로는 심오한 종교 메시지 전달이 만족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다. 감각 중심의 전달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 깨닫는 방식 즉 명상이나 묵상을 통해 깨닫게 하는 방식이 종교적 메시지 전달의 방식으로 연구 개발 되어야 한다.

핵심 주제어 : 종교적 메시지, 근대주의 인식론, 포스트모던 인식론, 다원주의, 연역적 전개방식, 귀납적 전개방식, 이미지 전달, 침묵에 의한 전달,

I. 서론

사람들의 사물과 현상을 인식하는 방법은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연결된다. 인식론과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즉 어떻게 인식하나? 하는 것은 곧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시사(示唆)해 준다.

근대주의 인식론을 뒤받침 해주는 사상은 이성주의와 과학주의 그리고 체계화와 총체성의 이념이다. 근대주의 인식론에서는 어떤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인식의 주체에 의해 객관적 실체가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진리가 이성의 힘에 의해 총체적으로 합리화될 것이라는 인식이다.

근대주의 인식론의 바탕 위에 학교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은 주지주의적(主知主義的)이고 전달 주체자 중심의 전달 방식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또한 교회의 종교의 메시지 전달에서도 학교-교수형(Schooling-Instruction Paradigm) 메시지 전달 방식에 따라 일방적이고 지식의 양을 중시하는 교육의 방식을 따랐다.¹⁾ 이러한 교회의 메시지 전달 방식은 학교-교수형 전달 방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탈근대주의 즉 포스트모던 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람들의 지각구조(知覺構造)가 변하였고 그에 따른 인식론에도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포스트모던 인식론의 특징을 한 마디 말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 개념이 갖는 외연들은 상대주의, 다원주의, 해체와 탈 중심, 불연속성 등이다. 이들 포스트모던의 개념을 형성하는 외연들을 인식론적이 관점에서 이해하면 포스트 모던 인식론은 상대주의와 다원주의 인식의 경향을 띠며, 객관적이 인식보다 개인의 감성과 느낌을 중시하는 감성적 인식의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포스트모던 인식론이 교회의 메시지 전달에 영향을 준 사상은 다원주의, 상대주의, 인간의 탈중심화, 텍스트 해석학, 이성의 탈신격화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던 인식론의 도전으로 각 종교에서도 메시지 전달방식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교회 사찰 등에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 강의, 설교, 강론 등 학교-교수형의 형태를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종교적 메시지의 학교-교수형 전달 방식은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선포 방식으로 청중이 어떻게 듣는가에 대한 관심보다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갖는다.

본 연구는 예배 혹은 종교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교메시지 전달의 문제를 제기하며 포스트모던 인식론에 바탕을 둔 메시지 전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하고자 한다.

1) John Westerhoff III, Will Our Children Have Faith?(N. Y.: Sebury Press, 1976), p.6.

II. 종교적 메시지 특성과 전달 문제

종교적 메시지의 내용은 철학적 진리나, 신학적 진리, 종교학적 진리 등을 주제로 한다. 종교적 메시지의 특성상 사변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종교적 메시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종교의 메시지의 전달 방식은 주로 근대주의 인식론에 기반을 둔 전달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설법, 설교, 강론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종교 메시지의 전달은 근대주의 인식론을 바탕으로 연역적 전개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설명 방식에 의존하여 대부분의 진리 전달의 방법이 논설식 전달, 명제 해설식 전달, 대지 설명식 전달 방법으로 이루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달 방법은 논리성이나 지식의 주입 등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현대의 인식론에 비추어 볼 때 효과적인 메시지의 전달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메시지의 전달은 무엇보다도 메시지가 청중의 삶과 관련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청중의 삶과 분리된 객관적 지식으로 존재하게 된다. 티리케(Helmut Thielcke)는 이러한 메시지 전달방식을 가현설적 설교라고 한다.²⁾ 가현설(假顯設)이란 기독교 신학적 용어로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한다. 즉 인간의 일상적인 삶과 관련이 없는 메시지 전달을 가현설적 설교라고 한다.

종교적 메시지의 특징은 전달자 자신의 주관적 생각이나 경험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에 기반을 둔 전달이라는 것이다. 텍스트는 종교의 창시자가 깨닫거나 혹은 계시에 의해 받은 진리를 청중에게 선포한 것을 남긴 것이다.

설교, 설법, 강론 등은 텍스트의 해석으로 이루어진다. 종교적 메시지가 해석에 의한 진리 전달이라는 특성상 메시지 전달자는 텍스트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리를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경향에 의해 논설식, 명제 해설식, 대지 설명식 등의 메시지 전달 방법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종교적 메시지 전달의 특징은 가능하면 텍스트 원저자인 의미를 충실하게 전달하고자 한다는데 있다.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펼치는 일반 강연과 다르게 원저자의 의미를 전언(傳言), 혹은 대언(代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상 메시지의 전달은 일방적이고 선언적(宣言的)인 전달이 될 수 있다.

종교적 메시지의 선언적이고 선포로서의 전달이라는 특징 때문에 ‘청중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들어라” “믿어라”는 전달자의 요구가 전제된 전달자 중심의 메시지 전달이다. 즉 지금까지의 종교적 메시지 전달방식은 전달자의 텍스트에 대한 인식론에 관심을 가졌지만 청중의 메시지에 대한 인식론은 별로 관심의 초점이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종교 메시지의 전달방식은 대부분 학교-교수형의 교육방식을 따르고 있다. 학교-교수형

2) Helmut Thielicke, 심일섭 역, 『현대교회와 고민과 설교』 (서울: 대한기독교 서회, 1982), 101쪽

교육방식은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인격적 만남이 배제되고 교사는 가르치는 기계로서, 학생은 배우는 기계로서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종교 메시지의 전달도 학교-교수형의 만남처럼 전달자와 청중의 인격적 만남이 배제되고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종교적 메시지 전달에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감각에 접근하는 종교적 메시지 전달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사용은 포스트모던 사고를 이끌어 왔지만 한편 포스트모던의 사고는 청중에게 멀티미디어 사용을 요구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종교적 메시지 전달에서 멀티미디어를 잘 못 사용하면 전달자와 청중의 인격적 만남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포스트모던 시대는 “들어라”하는 전달에서 벗어나 “들려지는” 전달을 모색하여야 한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청중 인식방식을 고려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메시지가 인식되어질 수 있도록 전달되어야 한다. 청중의 요구가 무어이며, 어떨 때 청중에게 감동이 오는가를 이해한 터전 위에서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한다.

III. 포스트모던 인식론과 종교적 메시지 전달

포스트모던 인식론을 단순히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학문 분야나 관점에 따라 정의를 내리고 있다. 신학이나 종교학에서 포스트모더니즘 인식론을 다루게 될 때 일반적으로 탈근대주의, 상대주의, 다원주의, 문화주의라는 말이 주로 키워드로 사용된다.³⁾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은 종교학, 신학, 그리고 신앙의 형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관념론적 신학 논쟁과 절대가치는 부정되고 상대주의와 다원주의 현상을 지향하게 되었다. 다원주의 문화가 상대주의 인식의 경향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상대주의 현상으로 성(聖)과 속(俗)의 구분이 없어지고 혼합주의 경향을 띠게 되었으며 절대성과 권위에 대한 부정의 경향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종교 문화 전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 놓았다. 다원주의 측면에서는 절대적 진리, 텍스트의 계시성에 대하여 회의주의 경향을 띠게 되었고, 특정종교가 자신의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구원은 내 종교 밖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소로킨은 문화의 탄생과 소멸, 성장과 쇠퇴, 퇴락과 부흥의 과정을 관찰하여 문화의 단계가 관념문화의 단계, 이상주의 문화의 단계, 감각문화의 단계로 거쳐 왔다고 주장하였다.⁴⁾ 현대의 문화를 감각문화 대중문화의 시대라고 한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의 지각 방식은 인

3) 김옥동,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민음사, 2004), 31쪽.

4) Pitirim A. Sorokin, *The Crisis of Our Age*(Oxford: One World, 1992) 참조.

상적이고 육감적이며 외형적인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에서도 이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논리성보다는 감성과 느낌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는 인간의 사고나 인식의 방법을 바꾸어 놓는다. 현대인의 인식의 방식을 포스트모던 인식의 방식으로 바꾸어놓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멀티미디어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의 등장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만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상이나 가치관을 탄생시키는 배경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매체의 등장이 새로운 시대사조를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박상진은 멀티커뮤니케이션의 발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람들의 인식의 형태가 달라졌다고 설명한다.⁵⁾

“문자 및 활자 인쇄 커뮤니케이션 시대의 시각 단일형의 특성에서부터 복수감각형으로 변화하고, 단선적 논리의 추구만을 강조하던 방식에서 감각과 감성, 상상이 중요한 인식으로 재부상하게 되었다. 활자 인쇄 및 커뮤니케이션의 시대에는 개념의 설명이 중요하지만 전자미디어 시대에는 이미지가 더 중요하게 강조되며, 개별적 수단적 인식에서 종합적 복수적 인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멀티미디어가 바꾸어 놓은 문화를 ‘감성의 문화’ ‘느낌의 문화’ 라고 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는 해체와 불연속성의 문화를 가속화 시켰다. 문자 및 인쇄 커뮤니케이션 시대에는 그 특성상 논리적인 설명의 방식을 통해 전달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시대는 이성에 의한 설명보다는 인간의 오감을 통해 느끼게 하고 보여주는 시대다. 단어나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영상, 음악, 이야기 등을 통해 청중의 상상력을 높여주고 이미지를 통한 표상(表象)으로 이해토록 하는 방식이다.

성직자 가운데 종교적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교회가 현대 문화와 사조의 경향을 따라서 청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를 가진 성직자도 있다. 이러한 성직자는 ‘진리는 어디까지나 선포되어야 함으로 청중이 어떻게 듣는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진리를 주입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사람들의 인식방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형태가 변화하였다고 하여 종교의 절대 진리가 변해야 하거나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절대적 진리가 설명되어지는 옛 방식이 더 이상 신뢰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의 포스트모던 인식론의 바탕위에서 종교적 메시지 전달의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옛 방식의 메시지 전달 방식은 이성에 의한 합리적 설명에 초점을 두었다면 멀티미디어 시대의 방식은 귀납적이고 감성적인 묘사에 초점을 두었다. 즉 전자는 일방적인 전달의 형식이고 후자는 대화적인 전달이 된다. 이를 상세히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

5) 박상진,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교육」,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교육』, 사미자 교수 은퇴기념논문집(서울: 장로회신학대학 기독교교육연구원, 2006), 200-201쪽.

〈표. 메시지 전달의 방식의 비교〉⁶⁾

표현 방식		전달 방식	
활자 인쇄 시대	멀티미디어 시대	활자 인쇄 시대	멀티미디어 시대
연역적	귀납적	일방적	쌍방적
수사학적	시학적	수직적, 권위적	수평적, 민주적
문어적	구어적	책, 문자	E-Book, 회화
명제적	비유, 아날로기	핫(hot) 매체	쿨(cool) 매체
논증적	미학적	공간적 매체	시간적 매체
해설적	이미지	단선적 매체	오감 매체
개념적	경험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산문적	지적	강의실 강의	사이버 강의

IV. 포스트모던 시대의 종교적 메시지 전달

1. 연역적인 것에서 귀납적인 것으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종교 메시지의 전달은 연역적 방식으로 전개되어왔다. 연역적 전개의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 진리를 전제로 하여 특수한 사실을 이끌어 가는 전개 방식을 말한다. 귀납적인 전개 방식은 그 반대로 경험적 사실을 통해 일반적 진리를 이끌어 내는 전개 방식을 말한다.

지금까지의 종교 메시지 전달 방식은 일반적으로 연역적 전개방식을 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주제를 언급하고 그 주제를 3단 논법이나 대지 구분에 의하여 설명하고 예증하며 청중의 삶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연역적 전개 방식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어떤 주제나 교리에 대해서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현대인들의 지각구조에 맞는 전개방식으로는 적합하지 못하다. 현대인들의 지각구조에 있어서 인식의 영역이 바뀌고 있다. 단순한 말이나 이성에 의해 짜 맞추는 설명으로는 메시지의 수용을 쉽게 할 수 없게 되었다. 어떤 주제에 같이 참여하고 같이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하는 것이 청중의 커뮤니케이션 경향이다.

연역적 전개방식은 전달자 자신이 내린 결론을 청중의 삶과 믿음에 적용할 수 있는 권리

6) Eugene L. "The Revolution of Sermonic Shape." in *Listening to the Word*(Nashville: Abingdon Press, 1994), 김운용, 『왜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하는가?』 앞의 책, 106쪽 참조.

를 가졌으며 청중은 그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존재라는 것을 전제한 방식이다.⁷⁾ 이러한 방식은 청중의 메시지의 이해나 수용을 고려하지 않고 성직자는 단지 메시지의 전달자요, 대언자라는 권위를 가지고 선포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연역적 방식은 민주주의 전달 방식이 아니다. 현대인들은 누구의 추종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성직자와 동반자요 동역자라는 생각을 갖는다. 청중이 인정하는 성직자의 권위는 말씀의 대리자, 대언자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말씀을 전달하는 전문인으로서의 권위를 갖게 된다.

연역적 방식의 메시지 전달 방식에 대한 청중의 불신에서 귀납법적 메시지 전개 방식이 대두되게 되었다. 1970년대 초 미국교회에서 연역적 설교가 더 이상 청중에게 흥미와 관심을 주지 못하고 있을 때 부로노 드레허(Bruno Dreher)는 그의 저서 『설교학적 귀납법』에서 귀납법적 설교를 주장하였다. 이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되어 연역법적 설교에 대한 반성과 귀납법적 설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최근에는 귀납법적 설교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크레독(Fred B. Craddock)의 『As One without Authority』이라는 책이 출판되면서 귀납법적 설교가 메시지 전달 방식의 주류가 되어가고 있다.

귀납법적 메시지 전달은 설교의 중심 사상이 청중에게 익숙하게 들리는 개개인의 경험에서부터 일반적인 진리나 결론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⁸⁾ 현대인의 지각구조가 이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논리성보다는 감성과 느낌을 중시하는 지각구조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연역적 전달 방식보다는 귀납적 방식에 더 익숙하다고 할 수 있다.

귀납법적 메시지 전달의 특징은 설교의 진전 과정에 회중이 참여하여 전달자와 같이 결론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전달자가 내린 결론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회중이 메시지를 통해 자신들이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연역적 메시지의 전달은 권위주의적이고 일방통행의 전달인데 비하여 귀납법적 메시지의 전달은 쌍방통행이며 민주적인 전달이다.

귀납법적 메시지의 전달은 참여적이고 대화적이다. 대화적이라는 것은 실제로 대화를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대화의 정신으로 메시지를 전달함을 의미한다. 대화의 정신이란 청중이 참여하여 결론을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전달과정에서 전달자와 청중의 교감이 이루어진다.

귀납적 방법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와 궁극적인 실재와 그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성립된다.”⁹⁾ 메시지 전달과정에서 회중은 계속적으로 “왜?”라는 질문을 던질 것이며 메시지의 전달자는 계속적으로 물어오는 물음에 대하여 답하는 방식으로 메시 전달이 진행된다.

7) Fred B. Craddock, As one without Authority, (St. Louis: Chalice Press, 2001), p.46.

8) 위의 책, 47쪽.

9) 위의 책, 51쪽.

전달자와 청중과의 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설교는 결론을 향해 움직여 간다. 청중이 함께 참여 하며 결론을 만들어가고 궁극에 가서 ‘아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이 일어나게 된다.

2. 해설에서 상상력과 이미지로

인간이 무엇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이미지로 대체하거나 지금 까지 가졌던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에게 어떤 메시지가 주어질 때 메시지의 내용과 전달 방식에 따라 이미 형성된 이미지가 더욱 강화되기도 하고 기존의 이미지가 약화 소멸되어 새로운 이미지로 대체된다.¹⁰⁾

인간은 본래부터 사물이나 현상을 이해할 때 어떤 개념적인 구조보다는 이미지를 통해 이해하였다. 문자 이전의 시대에 살던 인간들은 의사를 전달할 때 그림을 통해서 전달하다가 상형문자를 만들게 된 것은 인간은 사물이나 현상을 이해할 때 이미지로 이해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폴 리피르는 인간의 상상력은 구속적(救贖的)이라고 하였다.¹¹⁾ 상상력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종교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초월적인 세계를 보고, 계시적인 말씀을 이해하고, 미래의 세계를 예측한다. 상상력은 이미지를 변경하고 창출하는 기능을 한다. 상상력을 통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개념에 대한 이미지를 수정하고 창조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상상력은 구속적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문자가 발명되고 글로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서 이미지로 전달하고 이미지로 받아들이던 의사소통에서 이미지로 이해하기 보다는 개념적 구조에 의해 이해하려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전달자는 논리와 추상적으로 전달하려고 하였고 수신자는 객관적 인식을 하려는 경향을 낳게 되었다.

전자미디어의 등장과 멀티미디어 시대가 열리면서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박상진은 “문자 및 활자 인쇄 커뮤니케이션 시대의 시각단일형의 특성에서 복수 감각형으로 변화하고, 단선적 논리 추구만을 강조하던 방식에서 감각과 감성, 상상의 방식으로 재부상하게 되었다.”고 말한다.¹²⁾ 활자 문자 커뮤니케이션 시대에는 개념 설명에 의한 이해가 중요하였지만 전자 미디어 시대에는 이미지에 의한 이해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멀티미디어를 통한 영상문화가 발달하면서 종교 메시지 전달방식에도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종교 메시지 전달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명제적이고 논

10) 김운용, 「왜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하는가?」, 『기독교사상』 495호 2000년 3월호(대한기독교서회), 225쪽.

11) Maria Harris, Teaching & Religious Imagination(San Francisco: Haper & Row, 1987), p.3.에서 재인용.

12) 박상진, 앞의 책, 200쪽 참조

쟁적인 메시지 전달 형태는 이제 청중에게 낯선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되었다. 전자문화와 영상 문화에 익숙한 청중들은 논리적 명제에 의해 어떤 개념을 받아드리기 보다는 이미지, 메타포, 유비, 일러스트레이터 등 회화적인 이미지로 개념을 받아드리게 되었다.

특히 텔레비전 문화에 익숙한 청중들의 지각구조가 이미지로 느끼고 생각하는 구조로 변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텔레비전의 시청이 3-4시간 된다고 한다.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태도도 메시지 청취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텔레비전 시청을 하는데 시청자는 한 채널을 고정적으로 보기 보다는 평균 6-7분 만에 한 번씩 채널을 바꾸면서 시청한다고 한다.¹³⁾ 이러한 시청 습관은 한 테마가 긴 시간 지루하게 전달되기 보다는 장면이 자주 전환되면서 스토리를 전개하는 것에 익숙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청의 경향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탈중심성과 불연속성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종교 경전을 보면 진리를 설명할 때 유비(analogy)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기독교 경전인 성서의 예를 보면 예수가 천국을 설명할 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비유를 사용하여 '천국은 ---와 같다'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한 개념을 논리적이고 명제해설 방식으로 설명한다면 청중에게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남지 않는다. 유비를 통해 메시지를 설명을 하게 될 때 이미지가 떠올라 이해가 빠르고 오래 기억을 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 시대가 도래 하였다고 하여 종교적 메시지 전달에서 언어의 중요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종교적 메시지에서 언어는 예나 지금이나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이 된다. 다만 메시지 전달에서 개념적 언어적 사용보다는 회화적인 언어, 빈사(賓辭)를 사용하여 청중이 상상하고 표상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하는 것이 과제가 된다.¹⁴⁾

3. "들어라"에서 깨우침을 주는 것으로

포스트모던 시대의 종교메시지 전달에 있어서 청중에게 들려지는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는 메시지 전달 방법뿐만 아니라 메시지 전달자와 수용자와의 새로운 관계설정, 메시지를 전달하는 언어, 메시지가 전달되는 문화와 현장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한다.¹⁵⁾

현대는 메시지전달자에 대한 권위의 이해도 달라져야 한다. 과거의 종교 메시지를 전달하는 권위는 '군림하는 권위'요, '수직적 권위'였다고 할 수 있다. 수직적 권위는 성직자이기 때문에 갖는 권위요, 신의 '대리자로서의 권위'이다. 그러나 절대적 가치를 거부하고 상대적 가치를 받아드리려고 하는 현대에서 성직자의 권위는 더 이상 '군림하는 권위'도 '수직적 권위'가 아닌 '전문가로서의 권위'이며 비판과 토론을 받아드릴 수 있는 '열린 권위'라고 할 수 있다.¹⁶⁾ 현대인은 누구의 추종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13) 김운용, 「왜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하는가?」, 앞의 책.

14) 전경숙, 『NLP 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2006), 70-72쪽.

15) 김운용, 「왜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하는가?」, 앞의 책, 105쪽.

동반자로 성직자를 받아들인다.

현대인에게 성직자는 인간의 치유와 구원을 위한 전문가이며, 신의 대리자가 아닌 신도의 대리자로 생각한다. 따라서 과거처럼 웅변으로, 일방적인 선포로서 종교 메시지가 전달될 때 청중에게 메시지는 따분한 잔소리로 들리게 된다. 일방적인 “들어라”하는 메시지 전달에서 청중에게 “들려지는” 메시지 전달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중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들의 이해의 지평위에서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한다.

토마스 롱(Thomas G. Long)은 종교적 메시지의 전달자는 전령으로서보다 증인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¹⁷⁾ 증인은 그의 위치와 힘 때문에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고,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권위를 갖는 것이다. 증인은 청중이 어떻게 듣는가를 알고 전달하며, 진실을 전달하기 때문에 권위를 갖는다.

포스트모던 인식론 연구에 영향력 있는 학자 폴라니(Michael Polanyi)는 그의 책 『인격적 지식론』에서 객관주의적 과학자들은 인식에 있어서 인격적 차원을 무시한다고 지적하면서 인식에 있어서 열정, 신념, 헌신, 내주, 상상 등의 개념을 통해 지식의 인격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폴라니는 지식에 대한 객관주의적 관점을 인격적이고 참여적인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전달자와 수용자는 상호참여적인 관계가 되어야 함을 말한다. 그는 상호참여 속에 “삶은 존재로 확장되고 확장된 존재는 상호 헌신과 이해 안에서 성숙함으로 상대의 삶속에 더 깊이 온전하게 참여하게 된다.”¹⁸⁾고 하였다.

폴라니의 주장처럼 종교 메시지의 전달은 전달자와 수용자가 텍스트의 의미에 같이 참여하고 전달자와 수용자의 삶 속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메시지 전달에서처럼 전달자가 텍스트를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과 같이 텍스트에 참여해서 삶의 의미를 위한 결론을 찾아 가는 메시지 전달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종교적 메시지 전달은 보통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지식을 논리적인 설명방식으로 전달하였다. 텍스트를 중심하고 텍스트의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 했고, 당시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였다는 것을 중요시하였다. 그러나 현대 신앙인들은 과거에 저자가 무슨 말을 했는가보다는 텍스트 저자의 말이 오늘 나의 신앙에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더 중요시한다.¹⁹⁾

다원주의, 상대주의, 감각주의 등의 포스트모던 사고는 필연적으로 개인주의 성향을 가져

16) 박효종, 『민주주의와 권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2-4쪽.

17) Thomas G. Long, *The Witness of Preaching*(Kentucky: John Knox Press, 1989), p.44.

18) Michael Polanyi, *Personal Knowled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1974), pp.95-96.

19) Robert Kysar and Joseph M. Webb, *Preaching to Postmoderns*(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2006), P.24.

20) 이러한 해석학적 관점은 어거스틴의 텍스트 해석의 관점이다. Waner G. Jeanrond, *Theological Hermeneutics*, 최덕성 역, 『신학적 해석학』 (서울: 본문과 현장사이, 1997), 45쪽 참조.) 이러한 해석학적 관점은 어거스틴의 텍스트 해석의 관점이다. Waner G. Jeanrond, *Theological Hermeneutics*, 최덕성 역, 『신학적 해석학』 (서울: 본문과 현장사이, 1997), 45쪽 참조.

오게 된다.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기 보다는 주관주의적 경향을 띠게 된다. 텍스트에서 절대적 진리를 찾기 보다는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사실인가, 나에게 무슨 관련이 있는가를 추구하게 되었다.

과거의 텍스트 해석은 '텍스트의 어떤 것'에 대한 해석이었지만 현대의 텍스트 해석은 텍스트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과거의 성서해석은 원저자의 의미를 찾기 위한 해석이었다면 오늘 날의 해석은 독자에게 어떤 기쁨을 주고 행복감을 주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²⁰⁾ 따라서 성직자는 성직자에 의해 해석을 해서 전달하는 메시지 전달에서 독자에게 의미를 발견하도록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4. 말에서 침묵으로

포스트 모던의 탈주체 사고는 동양적 무아(無我)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 무아는 주체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텍스트 해석에서 전달자도 청중도 주체가 아니라 텍스트 자체가 주체가 된다. 따라서 텍스트의 의미를 텍스트로부터 듣기 위해서는 명상이나 묵상의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물론 명상과 묵상의 방식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겠지만 명상은 이미지 혹은 표상(表象)에 관계된다. 명상은 표상을 지우거나 표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상을 지우거나 만들어 가는 과정이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삐에르 바뱅(Pierre Babin)은 종교 커뮤니케이션에서 침묵과 상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상징은 종교적 이미지 형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미지 형성은 침묵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는 인간에게 융(Carl Jung)이 말하는 종교적 원형(archetype)이 이미지로 인간의 가슴에 자리 잡고 있는데 묵상에 의하여 종교적 원형과 만날 수 있다고 말한다.²¹⁾

지금까지 종교적 메시지 전달에서 말이 너무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청중은 말로 되어지는 메시지 전달에서 식상함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교회가 이성과 논리로 설명하는 전달 방식을 버리고 감성과 쾌락에 호소하는 메시지의 전달만으로 메시지를 온전히 전할 수 없을 것이다. 이성과 감성을 넘어서 인간의 순수의식(純粹意識)의 세계에서 종교적 진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명상이나 묵상을 통한 깨달음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제에 대한 묵상, 텍스트에 대한 묵상, 경험에 대한 묵상을 통해 종교적 원형과의 만남이 구원에 이르는 메시지의 전달이 될 것이다.

텍스트를 놓고 묵상한다는 것은 텍스트 자체가 말하게 하기 위함이고, 텍스트가 지시하는 길과 나의 길을 일치하게 하게 하기 위함이다. 칼 바르트의 말대로 내가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가 나를 해석하게 하는 방법이 묵상이라고 할 수 있다.²²⁾

21) Pierre Babin, The New Era in Religious Communication, 유영난 역, 『종교커뮤니케이션의 새 시대』 (서울: 분도출판사, 1993), 227-235쪽

해리스(Maria harris)는 새로운 인식의 방식으로 묵상적 상상력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묵상적 상상력은 종교적 주제들과 만남을 가능하게 해주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이해한다.²³⁾

“종교활동인 묵상에서 모든 연상에 전념함으로써 대상을 풍성하고 깊게 만든다. 묵상적 상상력은 묵상적 삶의 적극적 강렬함을 구현하며, 이것은 구체적현존에 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요구한다. 즉 전 존재의 현존 안에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며, 그와 함께 존재하며 완전히 그 현존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묵상적 상상력은 대상을 지각하게 해주는 정신의 깨끗함과 시야의 명료함을 구현해 준다. 이 상상력은 우리 모두의 내부에 존재하는 신비적인 가능성에 대하여 상기시켜 준다.”

언어를 통하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교육적 감화를 줄 수 있는 붓다의 위의교화(威儀教化)²⁴⁾나 노자의 불언지교(不言之教)²⁵⁾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메시지 전달 방식으로 고려해볼 전달 방식이다. 명상이나 묵상을 통하여 위의교화나 불언지교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은 종교 사역 전체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고 진리를 상대적으로 받아드리려고 하는 경향, 감각 문화와 오락성의 추구에 의해 종교적 진리를 고답적인 것으로 도외시하는 경향 등은 종교가 나가야 할 길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모던시대에서 포스트모던 시대로 전환되면서 종교적 메시 전환에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요구된다.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은 사람들의 인식의 방식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인식의 방식에 따라 효과적인 전달 방식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대인들의 포스트모더니즘 사고는 포스트모더니즘 인식을 가져왔다. 포스트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인식론은 다원주의, 상대주의, 문화주의라고 할 수 있다.

종교의 진리 전달을 위해 효과적인 전달 방식을 따르는 길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길일 것이다. 진리는 불변한 것이다. 인간의 의식과 문화가 바뀐다는 것은 진리를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다. 진리의 전달방식이 바뀌어야 함을 의미한다.

22) Werner G. Jeanrond, 앞의 책, 189쪽.

23) Maria harris, 앞의 책, p.21.

24) 김용표, 「붓다의 교육원리와 맥락적 교수법」(한국종교교육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 미간행 논문, 24쪽.

25) 조한석 「노자의 불언지교에 대한 재조명」(한국종교교육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 미간행 논문, 76쪽.

교회는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한 전통적인 메시지 전달 방식을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사고에 기반을 둔 메시지 전달 방식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 상황이다. 다만 교회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인식론을 이해한 터 위에서 포스트모던 인식론에 따른 종교적 메시지 전달 방식을 수용해야 한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전달 방식으로 “연역적인 것에서 귀납적으로”, “해설에서 이미지로”, “주입에서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말에서 침묵으로”를 제시하였다. 현대는 근대주의 종교 메시지 전달 방식에서 포스트모던 종교메시지 전달방식으로 전환되는 전환기에 있다. 기성 세대에게는 아직도 연역적, 해설, 주입식 등의 전달 방식에 익숙해 있지만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전달 방식에 식상해 한다. 종교메시지 전달 방식을 근대주의 방식에서 포스트모던 시대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멀티미디어의 발달은 포스트모던의 인식의 전환을 가속화 시켰다. 지금까지 말로써 해설하고 선포하는 전달 방식을 취해왔으나 현대인의 인식 방식의 변화에 따라 말 중심 메시지 전달에서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교회가 증가하고 있다. 멀티미디어를 통한 메시지 전달은 이성적인 논리를 따라 설명과 선포로 이루어지던 메시지 전달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시각적이고 이미지 중심의 메시지 전달로 전환되고 있다.

말을 통한 전달과 감각에 의존한 전달의 기존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묵상적 전달을 제안한다. 성직자에 의한 전달이 아니라 청중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묵상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종교적 묵상을 통해 종교적 주제를 보전하고 강화하는 종교적 메시지 전달의 방식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종교적 메시지 전달이 종교적 주제들을 깨닫고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때 텍스트의 의미를 스스로 묵상하는 추리묵상이나 감성묵상 그 자체가 종교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과의 대면이 아닌 자신의 순수의식과의 대면을 통해 종교적 초월성과, 신비성, 기쁨, 확신, 사랑 등의 감성적인 활동을 유발하도록 하는 종교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과제다.

참고문헌

- 김옥동.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주) 민음사, 2004.
- 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4.
- _____. 「왜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하는가?」, 『기독교사상』 495호(대한기독교서회, 2000년 3월)
- 박상진. 「포스트모던 인식론과 기독교교육」, 사미자 교수 은퇴기념 논문집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06.
- 박 석. 『명상길라잡이』, 서울: 도서출판 도솔, 2000.

- 박효중. 『민주주의와 권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 임삼규. 『멀티미디어 시대의 예배 멀티미디어 시대의 설교』 서울: 도서출판정금, 2004.
- 전경숙. 『NLP 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2006.
- 정웅섭. 『기독교교육 개설』, 서울: 대한기독교교육 협회, 1984.
- 정인교. 『현대설교 패턴으로 승부하라』, 서울: 청목출판사, 2005.
- Babin pierre, *The New Era in Religious Communication*, 유영난 역. 『종교커뮤니케이션의 새 시대』, 왜관. 분도출판사, 1993.
- Jeanrond G. Werner, *Theologica Hermenutic*, 최덕성 역. 신학적 해석학, 서울: 본문현장사이, 1997.
- Middleton Richard & J. Walsh Brian, *Truth is Stranger than it Used to be: Biblical Faith in A Postmodern Age*, 김기현, 신광은 역. 『포스트모던시대의 기독교세계관』, 서울: 살림, 2007.
- Thielicke Helmut, 심일석 역. 현대교회의 고민과 설교(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 T. Holmes, *Urban Ministry and Imagination*,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76
- B. Craddock Fred, *As One without Authority*, St. Louis: Chilice Press, 2001.
- Downton R. Keelan, *Authority in the Church*, New York: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06.
- G. Long Thomas, *The Witness of Preaching*, Kentucky: John Knox Press, 1989.
- Harris Maria, *Teaching & Religious Imagination*,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7.
- Kysar Robert & M. Webb Joseph, *Preaching to Postmoderns*, Massachusetts: Hendrickson. 2006.
- Polanyi Mechael, *Personal Knowled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4.
- Schultze Quetin, *Hib-Tech Worship*, Michigan: Baker Books, 2005.

원고접수: 2007년 11월 5일 1차심사: 11월 8일 게재승인일: 12월 18일

연구자 소개: 이재영

① 전공: 종교교육 / 소속: 선문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② 관심영역: 기독교 교육, 종교수행, 말씀 커뮤니케이션

③ 주요논저: 『심정교육론 연구』 『성약시대의 예배와 설교』 「수행과정의 공유를 통한 종교 간의 대화에 관한 연구」 「청소년의 죽음교육에 관한 연구」

④ E-mail: jaeylee2@hanmail.net

Abstract

A Study on the Delivery of the Religious Message in Post - Modern Era

Lee, Jae Young

Sun Moon University

World views have evolved with the change of the times. Modernism, stemming from the Enlightenment of the 18th century, laid the firm foundation for the scientific and rational epistemology and has served as the prevailing world view. However, the advent of post-modern era along with the cultural revolt in the 1970s, introduced a pluralistic and relativistic world view that puts emotion and personal feeling before objective knowledge based on reason and rationalism. The form of communication is closely linked with the speaker's perception. Under the modernism, people opted to deliver truth or knowledge in an objective manner on the basis of reason and rationalism: truth or knowledge was delivered in deductive manner through argumentation and explanation. However, with the spread of relativistic and pluralistic views of the post-modernism, the modernistic delivery of the religious message through deductive argumentation and explanation could no longer catch the audience's attention. In the post-modern era, the form of the delivery of the religious message is undergoing a shift from deductive to inductive, from explanation to imagery, and from lecture to emotional presentation. The aural lecture-type of the religious message delivery of the past is being substituted by the emotional delivery emphasizing personal feelings. In churches today, emotional communication, rather than verbal or written communication, begin to play more crucial roles in delivering the religious message. However, profound religious thought cannot be properly delivered through communication alone, be it verbal, written, or emotional. In order for religious teachings to become guiding principles for individual living, the religious message should not be taken merely as an object of delivery but as food for non verbal meditation or contemplation leading to self-enlightenment.

Key words : Religious message, modern epistemology, post-modern epistemology, pluralism, inductive method, deductive method, imagery presentation, reticent message.